

## 12 문화

# 배구부 시즌 첫 승 농구부도 5연승 질주

최예령 기자 herry2020@knu.ac.kr

배구부가 '2022 KUSF 대학배구 U-리그'에서 첫 승을 올렸다.

지난 18일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우리학교와 B조 명지대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우리학교는 세트스코어 3-1(25-22, 19-25, 27-25, 25-22)로 첫 승리를 가져갔다. 이날 승리로 A, B조 종합 순위에서 9위였던 우리학교는 5위로 오르게 됐다. 배구부 김찬호 감독은 "홈경기에서 첫 승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응원하러 와주신 응원단과 학우분들에게 선물을 안겨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김민(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 또한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 감독은 3세트에서 실책들이 이어지며 드스 상황이 연출된 것을 이날 경기에서의 최대 위기로 꼽았다. 김 감독은 "고비 때마다 박예찬(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가 팀의 중심이 돼 포인트로 연결해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예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양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인 19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도왔다.

이날 상대 팀 명지대는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박준서(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향해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이에 센터 블로킹을 담당하는 김영태(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자리를 바꿔가며 라이트 블로킹을 시도하는 등 활약을 보여줬다. 김 감독은 "김영태 선수의 활약이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며 "선수들의 의욕뿐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커버해주고 상대의 강점 또한 차단한 것이 이번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앞으로의 목표로 '선수 개인 역량 향상'을 꼽았다. 우승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감독은 "남은 경기를 위해 상대 분석을 잘하고 이에 따른 맞춤 훈련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오는 ▲6월 2일(목포대) ▲6월 10일(성균관대)에서 플레이오프 행을 결정짓는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김민 선수는 "앞으로



지난 18일 선승관에서 우리학교 배구부 홈경기가 열렸다.

(사진=최예령 기자)

남은 두 경기에서 이겨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구부와 축구부도 '2022 KUSF U-리그'에서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 농구부는 지난 19일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단독 3위(8승 2패)를 기록했다. 축구부는 지난 20일 서울강

서대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리그(2권역) 단독 3위(3승 1무 1패)를 유지하고 있다. 농구부 경기는 ▲5월 24일(중앙대) ▲5월 31일(연세대) ▲6월 4일(명지대) ▲6월 8일(성균관대), 축구부 경기는 ▲5월 27일(단국대) ▲6월 3일(명지대) ▲6월 10일(광운대) ▲6월 17일(사이버한국외국어대) ▲6월 23일(명지대)에 각각 예정돼 있다.

# 먹고, 바르고, 뿌리고 『알기 쉬운 백신 이야기』

서세종 기자 sejong0362@kn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의 신도서 『알기 쉬운 백신 이야기』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 전승민은 동아일보 등에서 과학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작가로, 책을 통해 백신의 기원과 역사, 원리 및 종류,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설명한다.

저자는 최초의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와 에드워드 제너, 백신이 인간의 면역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최근에 개발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 백신의 원리와 부작용 그리고 코로나 변이 등 다양한 범주에서 백신에 대해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시의성을 갖는 주제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중 미래에 상용화 예정인 치료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게 만든다. 저자는 미래에 백신을 투여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약으로 먹는 경구 백신, 코점막에 뿌리는 비강 백신, 바르는 백신, 살에 붙이는 패치형 백신, 심지어는 농산물로 섭취하는 식품 백신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다.

특히 저자는 백신을 둘러싼 오해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명한다. 그 예로 "백신을 맞는 것 보단 자연적



『알기 쉬운 백신 이야기』

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백신의 예방률은 사실상 낮다" 등의 소문에 저자는 과학적인 설명으로 오해를 풀어낸다.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보 수용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 의학적, 과학적 배경지식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옳은 인식을 이끈다. 나아가 저자는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독자들을 안심시키며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신뢰를 요청한다. 수많은 학자와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믿음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저자의 마음이 책 전반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백신 거부가 온전히 소문과 의심에 기반한다면 문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기 쉬운 백신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우리학교 태권도부가 협회장기 전국대회에서 여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진=태권도부 제공)

## 태권도부 협회장기 종합우승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nu.ac.kr

태권도부가 '제5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여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정을진 감독도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대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

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부문별로 기간을 나눠 겨루기 부문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격파 부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우리학교가 참가한 겨루기 부문 대학부 단체전은 8개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 형식이고 금메달 개수로 순위가 매겨진다.

우리학교는 여자대학부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종합우승을 거뒀다. -46kg 부문에 이예지(태권도학 2020) 선수, -67kg 부문에 박주아(태권도학 2021) 선수, -73kg 부문에 오승주(태권도학 2022)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62kg 부문에 안혜영(태권도학 2019) 선수가 은메달, -53kg 부문에 이혜정(태권도학 2021) 선수, +73kg 부문에 김수연(태권도학 2019) 선수가 동메달을 보태면서 종합 1위를 굳혔다.

남자대학부에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차지했다. -63kg 부문에 이민영(태권도학 2019) 선수가 금메달, -63kg 부문에 서정민(태권도학 2021) 선수, -74kg 부문에 김현우(태권도학 2020)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우수 지도상을 받은 정 감독은 "우리학교 태권도부는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이지만, 수상에 당연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꾸준히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훈련에서 집중한 부분을 묻자 정 감독은 "태권도 겨루기 규칙이 계속 바뀌어 감독과 선수 모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4학년이 곧 졸업해 실업팀이 거의 결정 난 상태에서 1, 2, 3학년의 훈련에 집중했고, 그 결과 해당 학년의 성적이 잘 나왔다"고 말했다.

이예지 선수는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출전 할 예정이다. 또 우리학교 태권도부는 오는 7월 열릴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태권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 감독은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 대해 포부를 드러냈다.